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許 椿*

목 차

- I. 序 論
- II. 高低, 長短, 抑揚, 速度
- III. 틀린 單語 使用에 따른 發音 誤謬
- IV. 結 論
- 參 考 文 獻

I. 序 論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은 국민들의 언어 생활을 좌우한다. 강단이나 서책을 통해 백 번 외쳐도 방송에서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고정된다. 국민들은 대체로 신문의 표기, 아나운서(announcer)나 성우의 발음, 티브이(TV)의 자막 등을 의심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드라마(drama)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 코미디(comedy)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program)은 그 영향이 더욱욱 지대하다. 좋은 교사가-실제로 우리말 발음에 정통한 교사는 매우 적은 실정이지만-아무리 정확히 가르쳐도 아나운서나 연예인 한 사람이 틀리게 해 버리면 그것으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언론 매체는 용어, 발음, 표기법, 외래어, 문장 부호, 문장 등 여러 면에서 우리말글을 醇化하기는커녕 오히려 惡化를 선도한다고까지 할 만한 상황이다. 방송의 바른 발음은 곧 보도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데, 우리말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정도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방송에 한해 보면, 갈수록 연예인 같은, 언어 훈련을 받지 못한 비전문인들의 출연 비중이 높아져 가는 탓도 있을 것이다. 전문 방송인보다 연예인의 말버릇이 言衆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니 더 걱정스럽다. 이들이 언중-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데, 이 점은 작가나 피디(PD)와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따라서 연예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이들이 출연하는 드라마도 일부 포함하였다. 게다가 지역 특유의 발음을 교정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대로 전국 방송에 출연하는 방송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반성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적시할 것이니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는다.

발음에 한해 보면, 우리에게 표준 발음의 척도로 삼을 만한 것이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표준 발음법'과 현실음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발음 표기는 사전마다 서로 다른 실정이다. 바른 우리말 발음 정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아니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1993년에 한국방송공사(KBS)에서 「표준 한국어발음대사전」을 펴냈으나 여타의 사전과 다르거나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도 많고, 방송인들도 별로 지키지 않는 듯하다. NHK(일본)나 BBC(영국) 같은 위상을 KBS가 가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노근리 사건' 보도에서 보인 발음의 혼란상([노근리], [노글리], [노근니] 등)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억양은 너무 恣意的이고 심지어 파괴적인 실정이라서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지경이다. 성우의 틀린 발음과 공익 광고의 오류는 놀라운 일이다. 전문가인 성우나 아나

운서까지 틀리게 발음하면 문제는 꼭 심각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실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론적인 논의는 깊게 하지 않겠다. 언론 매체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방송 언어 점검은 신문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발음에 이견이 적지 않고, 표준으로 삼을 만한 발음 사전도 마땅찮다. 그래서인지 우리말 발음에 대한 논문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는 우선 방송 언어의 여러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성과 관심을 촉구하고, 발음 규정의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하려 한다. 보여도 들려도 괴로운, 우리말글의 혼돈 상태를 점검하는 첫 단계로, 이 글에서는 먼저 발음의 혼란상을 제시하겠다. 정서법이나 문장(어휘)보다 관심이 덜한 분야가 바로 발음법이기 때문이다. 문학을 전공하는 필자가 이 일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20여 년간 언론 매체에 관심을 가지고 본 결과, 이제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론 논의에만 매달려 실제-특히 음성 언어-에 무관심한 이들과 언론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앞서 필자는 언론 매체에서 범하는 발음의 오류(받침, 모음, 동화, 첨가, 연음, 경음 등), '표준 발음법'의 미비점, 국어 사전마다 상이한 발음 표기 등을 논의한 바 있다.¹⁾ 이 글에서는 우리말 발음 중 고저, 장단, 억양, 속도 그리고 틀린 단어 사용에 따른 발음의 오류를 검토하겠다. 제한된 지면 관계로, 외래어, 외(국)래어+우리말의 발음은 별도로 논하겠다.

어떤 일이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틀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틀린 말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공중파 방송을 대상으로 했는데, 특정 방송이나 특정 프로그램이 많은 것은 중요도와 무관

1) 許椿 a.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 연구」 제6집, 2000.

— b.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서론'과 '결론'은 이 글들을 바탕으로 했으며, 인용 표시는 따로 하지 않는다.

하고 순전히 필자의 개인 사정 때문이다. 제주 지역의 예가 많은 것도 그렇다. 특히 라디오의 청소년 대상 심야 프로그램은 진행자나 초대 출연자의 언어 구사에 문제가 많으나, 자세히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프로그램이 연속되므로 자정이 넘은 경우도 방송 날짜 표시는 다음날로 하지 않았다.

필자 나름대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만의 하나라도 필자가 스쳐 들은 게 있을까 조심스럽다. 그러나 (시)청자(필자) 귀에 그렇게 들렸으면 그 자신이 어떻게 의도하고 발음했나 하는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실수라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조사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다 들 수는 없고 극히 일부만 보였으나, 많이 틀리는 말은 그만큼 많은 예를 들었다. 실명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채널(channel), 날짜, 프로그램, 방송 지역(지역일 경우)과 함께, 확인한 경우, 성의 첫 자음과 직업을 표시하였고, 성명 미확인시나 필요시에는 성별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든 것은 경각심을 촉구하는 뜻이다. 번거로움을 피해 방송 시간은 가능한 한 생략하였으나 필요시 10분 단위로 표시하였다.

발음 표기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국제음성기호나 음운 표기를 하지 않고 [] 속에 한글로 적었다. 되도록 최근 2~3년간의 예를 들되, 1988년 이전의 예는 지금도 규정의 변동이 없으면서 틀린 말을 보일 필요가 있을 때만 간혹 보였다. 이 중 1980년에 조사한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일 것이다. 혼동하기 쉽거나 논란이 있는 경우는 바른 발음을 따로 제시하였다.

II. 高低, 長短, 抑揚, 速度

‘표준 발음법’에서는 장단음만 규정하고 있다. 장단은 고사하고 고저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희미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억양이나 속도 또한 뚜렷한 기준도 모호하고 이상하게 왜곡하고 있다. 특히 장단음은 사전마다 다른 말이 많은데, 다른 말과 복합될 때는 장단이 달라지게 되

어 우리말 발음에서 가장 혼란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대한민국·한국·한글’조차 그 장단음이 통일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1700개 정도의 상용어의 장단음이 서로 맞선 것을 가려서 그 불통일성을 제시할 정도이다²⁾. 고저·장단은 일일이 외워서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써온,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을 찾는 일이다. 이 또한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한이 없을 듯하여, 잘 틀리는 말을 중심으로 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겠다.

먼저 해당 조항을 제시한다.

제 6 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처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1) 눈보라 [눈:보라] | 말씨 [말:씨] | 밤나무 [밤:나무] |
| 많다[만:타] | 멀리[멀:리] | 벌리다[벌:리다] |
| (2) 첫눈[천눈] | 참말[참말] | 쌍동밤[쌍동밤] |
| 수많이[수:마니] | 눈멀다[눈멀다] | 떠벌리다[떠벌리다] |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신 바:늑/반:신 바:니] 재삼재사 [재:삼 재:사]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 | | | |
|------------|------------|------------|
| 보아 → 봐[봐:] | 기어 → 겨[겨:] | 되어 → 돼[돼:] |
| 두어 → 뒤[뒤:] | 하여 → 해[해:] | |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저, 찌어 → 찌, 치어 → 처'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 7 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 — 감으니[가므니] 밍다[밍:따] — 밍으면[밍브면]
 신다[신:따] — 신어[시너] 알다[알:다] — 알아[아라]

2) 金秉南, 「우리말의 장단음」(長短音)(金秉南, 「八千萬 우리 한겨레에게 告함」, 1996. 3쪽. 참고)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끝다[끝:다] — 끌어[끄:러] 떨어[떨:따] — 떨어[떨:븐]
 벌다[벌:다] — 벌어[버:러] 썰다[썰:다] — 썰어[써:러]
 없다[업:따] — 없으니[업:쓰니]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따] — 감기다[감기다] 꼬다[꼬:다] — 꼬이다[꼬이다]
 밟다[밟:따] — 밟히다[밟피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플리다[플:리다] 벌리다[벌:리다] 없애다[업:쌌다]

[붙임]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 - 물 썰 - 물 쓴 - 살 - 같이 작은 - 아버지

1. 高 低

논란이 많은, 우리말의 고저는 장단음과 연관되는 것이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측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바, 대표적인 예가 ‘韓國’ 일 것이다.

‘韓國’의 발음은, [한국]으로 나온 사전도 있지만([민중]), 대부분의 사전에는 [한:국]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韓’은 평성, ‘漢’은 측성이므로 ‘韓’은 짧고 낮게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韓國’의 ‘韓’은 측성인 ‘國’의 영향으로 측성보다 더 높아진다. 즉 ‘平高調(仄上平高調)’가 된다는 말이다. 물론 ‘韓’이 짧고 ‘漢’이 긴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韓國’의 ‘韓’은 짧고 높게 발음해야 한다. ‘한’을 길고 높게 발음하면 ‘漢國’이 된다. ‘韓族’과 ‘漢族’의 ‘한’은 같이 高聲이라도 장단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우리말의 고저장단을 정리한 책³⁾은 고저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작업이라 반가웠다. ‘한강’의 ‘한’이 ‘하나’나 ‘크다’는 뜻이라면 ‘한’은 짧아야 한다(예:한 개, 한길, 한낫 등).

3) 손종섭, 「우리말의 고저장단」, 정신세계사, 1999. ‘平高調’ 설명은 이 책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지금 ‘漢江’으로 표기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한’은 길고 높게 발음해야 한다. 우리 나라 이름은 ‘한+國’으로 된 말이니 ‘한’을 ‘韓’으로 적으면 안 된다⁴⁾는 사실은 잠깐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韓國’으로 적고 있으니 고저 장단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나라 이름임에랴! 이같은 속사정을 알고 그러는지, 고저는 차치하고라도 장단도 혼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韓國’과 ‘漢國’을 구분하지 못하여 나라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사전의 틀린 장단음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완간된 「국어연구원」도 ‘韓:國’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에 고저까지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고저장단까지 표기해야 완벽한 사전이라 할 것이다⁵⁾. ‘한국’ 같은 말의 고저장단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한국(韓國)”(99.1.10. MBC TV ‘시사매거진 2580’ ㅅ·ㅎ기자는 짧게, 또 다른 ㅎ기자는 장단을 섞어서 발음하였다. 00.4.8. MBC R ‘제주 비전’ 공동 진행자 ㅂ아나운서(여), 00.7.20. MBC TV ‘100분 토론’ 토론자인 ㄱ출판 평론가는 ‘한’을 길고 높게 발음하였다. 00.7.22. K1TV ‘취재 파일 4321’ ㄱ(ㅅ(?))기자는 ‘한’을 짧고 높게 발음하여 좋았다.)

2. 長 短

앞에서 든 ‘돌다리[-따-](도랑에 놓은 조그마한 다리), 돌:다리(돌로 놓은 다리)’에서 보았듯이, 경음 뿐 아니라 장단 여부에 따라 뜻까지 달라진다. 이처럼 우리말의 장단음은 중요하지만, 외적인 여러 영향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말의 장단음이 결코 쉽지는 않다. 가령, ‘長短’을 보면 ‘長點, 短:點’처럼 長은 짧고 短은 길다. 그런데 ‘長:官, 長:

4) 정재도, “우리 나라는 한나라”, 한국교열기자회, 「말과 글」, VOL.73(1997. 겨울號), 12쪽.

5) 이 점은 ‘고저 장단의 사전 표시 시안’(손종섭, op.cit. 286~291쪽)을 참고할 만하다.

女' 같이, '長' 이 '어른' 의 뜻일 때는 길다. 이 때에도 '隊長, 會長' 처럼 뒷음절에 있으면 짧게 소리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長' 의 뜻이 '길다' 는 점 때문인지 대체로 '長' 을 길게 발음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 일전의 '--- 국어 교육 대토론회' (00.9.21, 제주도 학생문화원)에서 사회자가 "長:時間 수고하셨습니다." 한 것도 뜻에 얽매여 그 큰 발음을 한 것이다. 심지어 자기 성도 장단음을 틀리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를테면, 李: · 卞: · 錢: · 鄭: · 趙: 씨는 장음이고, 姜 · 康 · 金 · 朴 · 邊 · 夫 · 成 · 全 · 田 · 許 씨는 단음이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우리말은 첫음절에서만 장음으로 발음된다. 가령 "(국회 의원들의 국정 감사) 준비도 꼼꼼히[꼼꼬:미] 한 편이었고 ---"(00.10.19. K1TV '뉴스 라인' ㄱ 공동 앵커(남))처럼 제2음절이 장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방송에서 잘 틀리는 말 중 얼른 생각나는 말만 적어봐도, 家計, 家事, 家長(家長)-가:장(假裝), 監查-感:謝, 公約, 空約, 科擧-過:去, 過:程, 警察, 絞首-敎:授, 근대[荳蓬]-近:代, 나홀, 넓다, 눈[眼]-눈[雪]:, 늑다-젊:다, 다리[橋, 足, 髡], 도로(부사)-道:路, 同鄉, 東向-動:向, 뒷:거래, 뒷:심, 말[馬, 斗]-말:[言語], 問:題, 房門, 方文-訪:問, 榜:文, 負:債, 叛:軍, 발[足]-발[簾]:, 밤[夜]-밤[栗]:, 罰-벌[蜂]:, 犯:法, 便-變:, 父子-富:者, 夫婦, 非行, 飛行, 비[雨], 沙果-謝:過, 史:觀, 士:官, 史:官, 沙器, 邪氣, 詐欺-士:氣, 史:記, 死:期, 私立-四:立, 死:亡, 私組織, 사흘, 庶:民, 새[新]-새[鳥]:, 西行-徐:行, 先物-膳:物, 섬[石]-섬[島]:, 成-性:, 聖:, 姓:, 여러 姓氏(姜, 康, 孔:, 孟:, 史:, 徐, 成, 宋:, 沈:, 王, 李:, 邊, 卞:, 丁, 鄭: 曹, 趙:, 陳, 秦, 蔡:, 崔, 許, 河, 韓, 玄) 成人-聖:人, 城-姓:, 性:, 水量-數:量, 숫자(二:, 四:, 五:, 萬:, 둘:(두:), 셋:(세:, 석:), 넷(네:, 녁:), 너:이(=네 사람), 대:여섯 등은 장음, 두셋, 두서너, 서너, 서넛, 너넛, 너더넛 등은 단음), 媿家, 詩歌-市:街, 市:場, 市:長, 野:黨, 餘黨-與:黨, 安全-眼:前, 없:다, 汚:染, 怨讐, 元首, 元帥, 醫師, 議事, 擬似-義:士, 意:思 義:死, 이(此)-이(李):, 匠人-丈:人, 적다[記]-적:다[少], 傳記, 傳奇-轉:機, 電:氣, 第:一, 在:日, 政黨-正:當, 頂上-正:常, 專:業主婦, 조기[石首魚]-早:

起, 措辭, 朝士, 朝仕, 朝使, 調查-弔:辭(詞), 早:死, 助:詞, 鈞:師, 照:查, 照:射, 朝鮮-造:船, 住:民, 짓:긋다, 天職-賤:職, 寒冷, 現:金, 換:率 등 참으로 많다.

대체로 단음을 장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만을 통해 보면, 전체적으로 첫소리를 모두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 제주는, 장단의 혼란이 심한 편이다. 특히 제주 MBC ○ 아나운서(남) · ㄱ 기자(남)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이제 방송에서 장단음을 점검해 보겠다.

가. 장음이어야 할 말

- ① **검:사(檢事)** : “--- 검사장(檢事長)[금사장] ---” (00.7.17. K1TV 마감 뉴스 ㄱ 기자, 이상한 ‘ㄴ’ 발음 때문에 檢事長[검:사장]이 줄지에 ‘금 사장(琴社長)’이 되었다. 여하튼 ‘검사’는 ‘劍士, 檢査, 檢事’ 모두 장음이다.)
 “--- 국정원 검사(檢事)라 속이고 ---” (00.9.28.10:30 K1R ‘라디오 정보 센터’ 뉴스 ○ 아나운서(여))
 “--- 검:사(檢事)나 교:수(教授)라고 속이고 ---” (00.9.28.09:30 K1TV 뉴스 ㅂ 아나운서(여), ‘검사, 교수’를 다 길게 발음하여 반가웠다.)
- ② **교:대(敎大)** : ‘교육 대학’의 준말인 ‘교대’는 장음이다. 단음이면 ‘交代’가 된다.
- ③ **교:수(敎授)** : “--- 김 교수 ---” (00.8.2.09:50 K1TV 뉴스 ㄱ 기자, ‘敎授’는 [교:수]가 정확한 발음이다. 짧으면 ‘校首’가 된다.)
- ④ **과:연(果然)** : “과연[가연] 어떻게 이런 일이---” (00.5.16. MBC TV ‘PD수첩’ ㅎ PD)
- ⑤ **과:잉(過剩)** : “--- 과잉 ---” (00.7.20. MBC TV ‘100분 토론’ ㅎ 국회의원)
- ⑥ **김:밥** : “김밥[김밥]” (00.5.9.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 공동 진행자(여), [김:뺨]이라야 옳다.)

- ⑦ 내:사(內査) : “--- 내사(內査)에 착수했습니다.” (00.7.18.06 : 20 K1TV 뉴스 ㅇ 기자)
- ⑧ 대:규모(大規模) : “--- 대규모 시설입니다.” (00.7.18.06:20 K1TV 뉴스 ㅇ 기자)
- ⑨ 대:중(大衆) : “무대가 아니면 절대로 대중 앞에 ---” (00.7.28. MBC TV ‘MBC 스페셜’ 해설 ㅅ 성우(여))
- ⑩ 대:회(大會) : “대회에 참가한 농민 20여 명이 ---”(00.7.18.06:20 K1TV 뉴스 ㄱ 기자)
- ⑪ 돈:벌이 : “--- 부모가 돈벌이[돈벼리]를 위해 집을 비우는 사이 ---” (00.10.16. K1TV ‘한민족 리포트’ 해설 ㄱ 성우(남))
- ⑫ 등:급(等級) : “--- 등급[등급] ---”(00.7.20. MBC TV ‘100분 토론’ 토론자인 ㄱ 청소년 보호 위원과 아웃사이더 ㄱ 편집장, [등:급]이라야 옳다.)
- ⑬ 매:도(賣渡)·매수(買受) : “매도세(賣渡勢)를 강화하고 있으며---” (00.7.20. MBC R ‘2시의 취재 현장’ ㄷ 증권 ㅂ 씨)
 “매수(買受)[매:수] 우위를 보이는 ---” (00.9.28.09:30 K1TV 뉴스 ㅎ 증권 ㅎ 씨(여), ‘매수’를 길게 발음하여 좋았다. 그러나 ‘매수 우위’를 ‘매수위’처럼 붙여서 발음하는 일은 고쳤으면 한다.)
- ⑭ 못:지않은 : “(동아일보가) 조선일보 못지않은 위상을 ---” (00.5.16. MBC TV ‘PD 수첩’ ㅎ PD)
- ⑮ 반:군(叛軍) : “(인도네시아) 반군이 ---” (00.8.2.09:50 K1TV 뉴스 ㅇ 기자. ㅅ 앵커(여)는 장음으로 맞게 발음했다. ‘反軍, 叛軍’은 다 장음이다.)
- ⑯ 방:문단(訪問團) : “--- 방문단 ---” (00.7.3.09:40 MBC TV 뉴스 ㄱ 기자(남). ㄱ 앵커(아나운서, 여)는 장음으로 정확히 발음했다.)
- ⑰ 범:죄(犯罪) : “사이버 범죄 ---” (00.10.3. K1TV 뉴스9 제주 뉴스 ㅅ 앵커(아나운서, 남). 같은 날 19:30 K1TV ‘뉴스 네트워크’ 제주 뉴스 ㄴ 아나운서(여)는 장음으로 맞게 발음했다. 그러나 둘 다 [사이버]라고 했는데 [사이버](cyber)라야 한다. 외래어의 발음은 별고에서 검토하겠다.)

- ⑮ 섬[島] : “서해의 섬(섬(:))들 ---” (00.8.6. K1TV 뉴스9 ㅂ 기자와 공동 앵커(남)는 ‘섬, 섬.’을 혼용하였다.)
- ⑯ 예:우(禮遇) : “---김 전대통령에 대한 예우(애우)로 ---” (00.5.9. K1TV 뉴스9 ㄱ 기자)
- ⑰ 의:견(意見) : “--- 의견[으견]이 제시됐습니다.” (00.8.1.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ㅇ 앵커(기자))
- ⑱ 재:배(栽培) : “--- 마늘[마:늘] 재배[재배]---” (99.11.11.12:20 MBC R 제주 뉴스 ㄹ 아나운서(여), [마늘 재:배]라야 맞다.)
- ㉑ 전:주(電柱) : “전주(電柱)에 있는 까치알도 ---” (00.10.17.10:30 K1TV ‘뉴스 네트워크’ 제주 뉴스 ㅈ 앵커(아나운서, 남), [전주]는 ‘全州(全北의 도시), 前奏, 前週, 田主’ 이고, [전:주]는 ‘電柱, 銓注, 轉住, 轉注, 錢主’ 이다.)
- ㉒ 정(鄭) : “정범구(鄭-)의 시사 비평 ---” (99.11.14. K1TV ‘정범구의 시사 비평’ 끝맺음하면서 ㅈ 진행자, 비교적 발음이 정확한 진행자인데도 ‘鄭’을 짧게 발음했는데, 단음으로 하면 ‘丁’ 씨가 된다. ‘半開(閉)母音’의 발음에 대해서는 앞서 논하였다.⁹⁾)
- ㉔ 정:확(正確) : “정확한 ---” (00.8.1.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ㅅ 기자)
- ㉕ 최(最) : “최다:우지역(最多雨地域)” (00.7.2. MBC TV ‘생방송 퀴즈가 좋다’ ㅇ 진행자(남))
- ㉖ 폐:교(廢校) : “---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자 ---” (99.11.7. K1TV 뉴스9 ㅂ 기자. 공동 앵커(남)는 장음으로 바르게 발음했다.)
- ㉗ 환:율(換率) : “--- 특히 환율[환률] 인상으로 환율[환률]이 십 원 인상되면 ---” (97.11.10.16:50 MBC TV ‘MBC 뉴스 센터’ (제주 지역 뉴스) 아나운서(여), [환률]은 [화:률]이 정확한 발음이다.)
“--- 환율[화률] 급락 등을 고려할 때 ---” (00.9.6. K1TV ‘뉴스 네트워크’ ㅇ 공동 앵커(여))
- ㉘ 효:과(效果) : 발음은 [효:과](「국어연구원」, 「한글학회」([효:과:]), 「민중」 등)지만 [효:파]로 나온 사전(「KBS」, 「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도 있다(5-1)-에서 전술하였다.). 어쨌든 ‘효’는

장음이다.

“--- 환율이 십 원 인상되면 기름값이 이십 원 인상되는 효과[효과]가 있어 ---” (97.11.10. MBC TV ‘MBC 뉴스 센타’ (제주 지역 뉴스) 아나운서(여))

“원숭이 효과[효과]” (99.11.11.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 공동진행자(남))

나. 단음이어야 할 말

① **가장(家長)** : “한 집안의 가:장을 ---” (00.7.17. K1TV ‘제헌절 기획-법은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 리포터(여))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 (00.7.19. K2TV ‘병원 24시’ ㄱ성우)

② **가전(家電)** : “--- 필수 가:전 제품으로 ---” (99.11.13. MBC TV ‘뉴스 데스크’ ㄷ기자, ‘家電’은 단음이어야 한다. 길게 발음하면 ‘假傳’을 뜻한다.)

③ **경제(經濟)** : “--- 경:제 운전 요령---” (00.10.19.11:00 제주 MBC R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운전 요령 홍보, 제주 아나운서(남))

④ **계급(階級)** : “계:급과---” (99.11.20.19:20 MBC R 뉴스 ㄱ아나운서(여))

⑤ **계속(繼續)** : “---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00.7.2. K1TV 뉴스 ㄱ기자)

⑥ **고(高)-** : “고(高):○○ 씨 ---” (94.10.24. MBC TV 제주 뉴스 ○아나운서, ‘고’를 길게 발음하는 바람에 故人이 되어 버렸다.)

⑦ **광주(光州)** : “(수능 시험 후) 광:주(光州) 시내의 ---” (99.11.18. 09:50 K1TV 뉴스 ㅂ아나운서(여), ‘광:주’는 ‘경기도 廣州’를 말한다. 그런데 한 번은 짧게 발음한 것을 보면 장단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하다.)

⑧ **나는(飛)** : “나:는[飛] 칼인 飛刀는 --” (00.7.29. K1TV ‘역사 스페셜’ 해설 ○성우(남))

“나:는[飛] ADSL” (00.8.4. MBC TV ADSL 선전 성우(남), 설령 重義的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나[我]’ 역시 짧아야 한다.)

- ⑨ 나무 : “나:무를 재생해 줄 이 물과 흙은 ---” (00.10.17(16(?)), 19:20 K1TV ‘뉴스 네트워크’ 여수=○ 기자(남), ‘흙은[흙근]’은 바르게 발음했다.)
- ⑩ 다리[足, 橋, 髻] : “제주도 다:리[橋] (안:전(安全) 지장) ---” (94. 10.24.19:10 MBC TV 제주 뉴스 ○ 아나운서(남), ‘안전’도 짧아야 한다. 이 아나운서는 모든 말을 길게 발음하려는 나쁜 버릇이 있다. 98.5.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ㄱ 앵커(기자, 남), 이 기자도 모든 단어를 길게 발음하는, 그릇된 습관이 있다. 각성과 노력 바란다.)
“맞는 다:리[足]를 찾아주세요.” (00.4.4. K1TV ‘어린이 유치원 하나 둘 셋’ 목소리 출연 성우(여), ‘다리’는 ‘足, 橋, 髻’ 다 짧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영향이 크므로 발음에 더 유의해야 한다. ‘서요/세요’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검토한다.)
- ⑪ 다섯[五] : “다:섯 개”(98.5.21:30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ㄱ 앵커(기자, 남))
- ⑫ 당인(黨人) : “(권○ 고문은) 영원한 당:인으로 ---” (00.7.13 K1TV 뉴스9 ㄴ 기자(남))
- ⑬ 대가(代價) : “--- 援助의 대가(代價)[대:가]로 ---” (00.10.15.23:55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ㅅ 성우(남), [대까]라야 옳다.)
- ⑭ 대공(對共) : “대공 수사의 대:부로 불리우는 ---” (99.11.16. MBC TV ‘마감 뉴스’ ㅎ 해설 위원(남), [대:부]는 맞지만 ‘대공(對共)’은 [대:공]이라야 옳다. ‘대부’는 ‘大父 또는 代父(godfather)’의 뜻으로 썼을 텐데, 친족 용어든 종교 용어든, 현존 국어 사전에 이 글에 맞는 의미는 없다. 따라서 사전에 이런 의미의 뜻풀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불리우는’은 ‘불리는’이라야 한다. 이 점은 별고로 논한다.)
- ⑮ 마늘 : “--- 마:늘 재배---” (99.11.11.12:20 MBC R 제주 뉴스 ㄹ 아나운서(여))
- ⑯ 말[馬] : “벚꽃 처녀가 말[馬]:을 배우고 ---” (00.4.15. K2TV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진행 ㅅ 아나운서, 말[馬, 斗]은 단음이고 말[言語]은 장음이다.)
- ⑰ 무(無)- : 접두사 ‘無’를 장음으로 발음하는 이유는, ‘無’에 강세를 주

려는 잘못된 억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분별한 프로그램 복제 ---” (97.11.4. K1TV 뉴스9 제주 뉴스 ○ 앵커(기자, 남))

“(인류의) 무:분별한 ---” (99.11.7. K1TV ‘일요 스페셜’ 해설 ○(?) 아나운서(여))

“무:계획적인---” (00.5.1. K1TV ‘한민족 리포트’ ㄱ 성우)

- ⑮ 발[足] : “남의 발[足]: 좀 밟지 맙시다. --- (아빠, 엄마 다 같이) 우리는 깨끗한 발[足]: 가족” (00.4.4. K1TV ‘어린이 유치원 하나 둘 셋’ 목소리 출연 성우(남녀), ‘발[足]’은 단음이다. ‘발:’은 ‘발[簾], 한 발, 국수 발이 곱다’처럼 쓰인다. 수차례 [발:]을 반복하였는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라 그 폐해는 심각하다. 반성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얼굴, 표정, 발[足]: ---” (00.5.1. K1TV ‘아침 마당’ ㅎ 야구 해설자)

- ⑯ 밝다 : “날이 밝자[발:짜] ---” (00.5.22. K2TV ‘뉴스 투데이’ ○ 기자, 겹받침 발음도 틀렸는데 [박짜]라야 맞다.) “(농민들의 표정이) 그리 밝진[발:짚] 않습니다.” (00.5.19. K1TV ‘뉴스 네트워크’ 춘천=ㄱ 기자(아나운서(?), [박짚]이라야 한다.)

“--- 시장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발:씀니다].” (00.7.29. K1TV ‘취재 파일 4321’ ㄱ 기자, 역시 겹받침 발음도 틀렸는데 [박씀니다]가 정확한 발음이다.)

“--- (날씨는 찌푸렸지만) 마음은 밝:습니다[발:씀니다].” (00.9.25. MBC R ‘제주 비전 열린 이야기’ 공동 진행 ㄱ 아나운서(남))

- ⑰ 밤[夜] : “오늘 밤:---” (95.3.11.15:00 MBC TV 제주 뉴스 ○ 아나운서(남), ‘밤:’은 ‘粟’이다.)

“밤:부터는 비가 온다” (95.4.8.15:00 MBC TV 제주 뉴스 ○ 아나운서(남), 특히 제주 MBC의 이 아나운서와 ㄱ 기자(남)는 습관적으로 길게 발음하는 버릇이 있다. 이들은 단어를 짧게 발음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비[雨]’를 짧게 한 데서 위안을 삼는다.)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밤: ---, 토요일 밤에---” (00.7.23. K2TV ‘연예가 중계’(재) 공동 진행자(여), 장단음을 혼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듯하다.)

- ㉓ 배[腹, 船, 梨, 杯] : “--- 배[船]: ---” (99.1.13. K1TV ‘수요 기획’ 진행 ㄹ 배우, ‘배:’는 ‘倍, 拜’다.)
 “우리 배[梨]:로 만든 음료는?” (99.11.3. MBC R ㅎ 음료 광고, 장단음을 혼용하였다.)
- ㉔ 비[雨] : “오늘은 비: 소식부터 ---” (97.11.11.21:40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ㄱ 앵커(기자, 남))
- ㉕ 비정(非情) : “--- 비:정한 부모에 의해 ---” (99.11.7. K1TV 뉴스 9 공동 앵커(여))
- ㉖ 사거리(射距離) : “(유도탄의) 사:거리---” (00.7.13.16:00 MBC R 뉴스 ㅂ 아나운서(여))
- ㉗ 사격(射擊) : “--- 사:격 연습을 해서 ---” (00.5.14. K1TV 뉴스9 ㅅ 공동 앵커(남))
- ㉘ 사교육(私教育) : “특히 사:교육비 절감 문제---” (99.1.12. MBC R ‘지금은 라디오 시대’ ㄴ ㅎ 공동 진행자. ㅂ 리포터는 장단을 섞어 썼는데 장단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듯하다.)
 “--- 사:교육으로 ---” (00.4.30. K1TV ‘일요 스페셜’ 해설 ㅅ 성우)
- ㉙ 사기(邪氣) : “병자의 사:기(邪氣)---” (00.1.3. MBC TV 극 ‘허준’ 허준 역의 ㅈ 탤런트, ‘사:기’는 ‘死期, 士氣, 使氣, 史記, 事機’로 전혀 다른 뜻이 된다. ‘私記, 沙器, 射技, 邪氣, 詐欺’ 등은 단음이다.)
- ㉚ 사립(私立) : “제주도내 사:립 유치원은 ---” (98.12.21. K1TV 제주 뉴스 ㄱ 앵커(기자), ‘四:立’은 ‘立春, 立夏, 立秋, 立冬’의 총칭이고, ‘사립(문), 絲笠, 簑笠, 私立’은 다 단음이다.)
- ㉛ 새[新]- : “각 기업들이 새: 달력을 ---” (99.11.13. MBC TV ‘뉴스 데스크’ ㅂ 공동 앵커(여))
 “새: 천 년의 ---” (99.11.11.19:30 K1TV 제주 뉴스 ㅅ 아나운서(남), 99.11.24. K1TV 뉴스9 ㅎ 공동 앵커(여)와 ㄴ 프랑스 특파원(여), ‘새:’는 ‘鳥, 사이[間]’이다. 99.11.11. K2TV ‘뉴스 투데이’의 공동 앵커(여)는 짧게 발음하여 듣기 좋았다.)
 “재건축 사업이 새: 집도 얻고---” (00.5.9. K1TV 뉴스9 ㅎ 공동 앵커(여))

“---새: 章을 열어왔습니다.” (00.5.9. MBC TV ‘PD 수첩’ 시작할 때의 해설 성우(여, 목소리 출연))

“--- 새(新): 주소 정비 사업을 ---” (00.7.30.21:30 K1TV 뉴스9 제주 뉴스 스(비(?)) 앵커(남))

㉔ **성인(成人)** : “여긴(필자 주:코미디 클럽) 성:인(成人)들을 위해 ---” (98.5.16. K2(1(?))TV ‘TV 데이트’ ㄱ 코미디언 (comedian), 코미디 클럽에 출입하는 사람은 聖人이라는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聖:人’ 과 ‘成人’ 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면 방송에 출연할 자격이 없다.)

㉕ **안전(安全)** : “제주도 다:리 안:전 지장 ---” (94.10.24.19:10 MBC TV 제주 뉴스 ㅇ 아나운서(남), ‘다리, 안전’ 다 짧아야 한다. ‘안:전’ 은 ‘눈앞[眼前], 案前’ 이다.)

㉖ **약(藥)** :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 (00.7.11. MBC TV ‘뉴스데스크’ 제주 뉴스 앵커(남))

㉗ **의사(醫師)** : “(장가용 씨는) 의:사 자격으로 ---” (00.8.17. SBS TV 8뉴스 스 기자, ‘醫師, 議事, 擬似’ 는 짧고 ‘義:士, 意:思 義:死’ 는 길다.)

㉘ **자구책(안)(自救策(案))** : “자:구책, 자:구안” (00.11.12. K1TV 뉴스 9 ㄱ 기자)

㉙ **자생목(自生木)** : “(지리산에) 자라는 자:생목들이 ---” (99.11.7 K1TV 뉴스9 공동 앵커(여))

㉚ **장구(長久)** : “신라는 천 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가진 ---” (00.8.5. K1TV 극 ‘太祖 王建’ 왕건 역의 초 텔런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長’ 은 짧고 ‘短’ 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長’ 이 ‘어른’ 의 뜻일 때는 길다.)

㉛ **전(全)-, 전(前)-** : “전(全): 은행에서 ---” (00.7.11. K1TV ‘마감 뉴스’ ㅇ 아나운서)

“전(全):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 (00.9.27.16:00 MBC R 뉴스 ㅇ 아나운서)

㉜ **전곡(全曲)·전국(全國)·전역(全域) 등** : “북한 가요 전:곡(全曲)이

---" (00.6.30. K1TV 뉴스9 ○ 기자)

“국민은행 전:국(全國) 지점에서---” (99.1.5. MBC TV ‘화제 집중 생방송 6시’ 진행 ○ 아나운서, ‘全國, 全局’은 짧아야 한다. ‘전:국’은 ‘戰國, 戰局’이다.)

“제주도 전:역(全域)을 재해 지역으로 --” (97.11.11.21:40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ㄱ 앵커(기자), ‘전:역’은 ‘轉役’이다.)

“제주도 전:역(全域)에 비[雨]:가 옵니다.” (98.5.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ㄱ 앵커(기자), ‘비[雨]’도 짧아야 한다. 이 기자는 거의 모든 단어의 첫소리를 길게 발음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 ㉔ 전라(全裸) · 반라(半裸) : “--- 전:라(全裸)[전:나]와 반라(半裸)[반:나]로 ---” (00.7.31.18:00 MBC R 뉴스 ㄱ 아나운서(남), 필자의 다른 글에서 검토했듯이 [전:나], [반: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발음법에 따르면 [절라], [발:라]가 정확한 발음이다. 이 점은 차치하고라도 ‘전’은 단음이다.)
- ㉕ 정기화(定期化) : “의약 분업이 정:기화할 경우에 ---” (00.8.13. K1TV ‘일요 진단’ 사회 ㄱ 해설 위원)
- ㉖ 제공(提供) : “(사은품이) 제:공됩니다.” (00.7.2. K2TV ‘시사터치 코미디 파일’ 목소리 출연 성우(남))
- ㉗ 조사(調査) : “--- 사상 최초로 공중에서 조:사(調査)했습니다.” (00.5.12. SBS TV ‘토요스페셜-아름다운 성’ 공동 진행 ㅂ 씨, ‘措辭, 調査’는 짧고 ‘弔辭, 弔詞, 早死, 助詞, 釣師, 照査, 照射’는 길다.)
- ㉘ 주부(主婦) : “주:부(主婦)가 아닌 주:부(主夫) ---” (99.11.17. MBC TV ‘주부 9단’ ㅎ 공동 진행자(여), 시승 전문인이 장단음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펍 안타까운 일이다. 정확하고 또렷한 발음은 유창한 말솜씨보다 선행해야 할 기본적 조건이다. ‘主婦, 主夫’ 다 짧아야 한다.)
- ㉙ 차질(蹉跌) : “---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 (99.11.4.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 앵커와 보도 기자, ‘차질’은 단음이라야 하니 장단음에 큰 차질이 생겼다.)
 “(제주산 축산물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00.10.30.12:20 MBC R 제주 뉴스 ○ 아나운서(남))

- ④5 천직(天職) :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 (학기말에 가끔 있는 퇴임 교사 인터뷰나 보도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천:직’은 ‘賤職’이다.)
- ④6 촬영(撮影) : “가방을 확인한 촬영[촬:령] 팀.” (00.10.15.17:40 K2TV ‘한국이 보인다’ 해설 성우(남, 목소리 출연), 음을 첨가시키지 않고 발음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단음이라야 한다. 기자도 아닌 성우가 이 정도를 틀리면 어찌하란 말인가?)
- ④7 탐나다(貪-) : “이 여자가 탐:이 납니다.” (00.7.4. K2TV 극 ‘목욕탕 집 남자들’ (재) ㄱ 텔런트(남))
- ④8 표결(表決) : “--- 해임안 표:결에 따른 ---” (98.12.20. MBC TV ‘뉴스 데스크’ ㄱ 기자, ‘表決, 票決’은 다 단음이다.)

3. 抑 揚

음성이 연속될 때의 음의 높기와 변동은 언어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데도, 우리말에서는 표준 억양이 정립되지 않고 교육과 홍보도 부족하여 제각각이다. 우리말의 바른 억양은 아무래도 방송이 앞장 서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마치 초등학생이 교과서 읽는 것 같아 인위적인 억양도 있고, 고저장단 없이 물 흐르듯 하는, 어색한 억양도 들린다. 우리말의 억양을 파괴하는 예다. 바른 말법은 아니지만, 경상 지역에서 “얼라[兒]가 ---” 하는 것이 표준은 아니지만 우리말에 고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의 악센트(accent)와 달리, 우리말의 강세는 말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특정한 단어에 온다. 단어에 한정해 본다면, 우리말은 대체로 첫음절에 강세가 주어진다. 그런데도 별 의미 없이 조사나 어미 또는 보조 용언에 강세를 주어 길게 발음하는 이상한 풍조는 시급히 고쳐야 한다. 가령 “만나 보니 예쁘데?” 같은 경우는 ‘데’에 강세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웃어 보자, 그런데, --- 하는데’ 처럼 엉뚱한 말에 힘을

7) 강세를 주는 말은 편의상 고딕으로 표기한다.

주는 경향이 방송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출연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00.7.7. MBC TV ‘뉴스데스크’ ㄱ 기자, 이 기자는 보조 용언에 강세를 두는 묘한 버릇이 있다.)

“밥을: 보는: 사람은: ---” (00.7.16.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 출연 여대생)

“--- 관객들입니다:., --- 나비입니다:., --- 가고 있습니다:., --- 지나고 있군요:.,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 제가 알기로는: ---” (00.7.17. K1TV ‘세상은 넓다’ ㄱ 리포터(reporter)(여), 이 리포터는 방송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을 한 개인의 버릇이라고 치부할 일만은 아닌 듯하다.)

“--- 엄격(嚴格)히 ---” (00.7.27. MBC TV ‘100분 토론’, ㄴ 변호사(여), ‘얼라(兒)처럼 제2음절인 ‘격’에 강세를 주는 것은 바른 말법이 아니다.)

“(강풍에) 철골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00.9.1. K1TV 뉴스9 ㄷ 기자)

“(한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이 오십여 개가 넘어 ---” (00.9.1. K1TV 뉴스9 ㄹ 기자)

“(우리 부부가) 남남으로 살려고 그래요?” (00.9.22. K2TV 극 ‘송화’ 송화 이모 역의 ㄹ 탤런트)

“---하고 있지만: ---,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있습니다:.” (00.10.3. K1TV ‘세상은 넓다’ ㄱ 리포터(여),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계속 ‘만, 다’에 강세를 주고 길게 뻗다. 리포터의 자격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 (00.10.11.09:30. K1TV 뉴스 ㄱ 기자(남), “검찰 발표대로라면 ---”이라야 정확하다.)

“관광 업무만을 (말고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00.10.11.09:50. K1TV 제주 뉴스 ㄴ 아나운서(여), “관광 업무만을 ---”이라야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예요.” (00.11.12. MBC TV 극 ‘눈으로 말해요’ 극 중 유미정 역의 텔런트(여), 짐승이 아닌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므로, ‘어울리지 않는’ 이라 말해야 한다.)

“(리콜 판정을 받은 차가) 25만여 대입니다.”(01.1.19. K1TV 뉴스9 비기자(남))

‘1. 高低’에서 전술했듯이 고저음과 장단음의 정립도 시급하다. ‘한국’의 예에서 보듯이 고저와 장단 그리고 이에 따른 강세는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띄어 읽기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띄어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전에 원고를 읽어 보는 준비성이 미흡하고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탓이겠다. 기자 혼자만 알고 쓰는 신문 기사가 적지 않은 것처럼(이점은 별도로 다루겠다.) 기자 혼자만 알고 말하는 일도 꽤 있다. 끊어 읽기를 잘못 하면 의미까지 달라진다.

“오늘 ‘정시~모집 원서’를 마감합니다.” (98.12.30. MBC TV ‘뉴스 초점’ 스 앵커, 띄어 읽기가 불완전해서 “오늘~ ‘정시 모집 원서’를---”이 “오늘 ‘정시(定時 또는 丁時)(예)~모집 원서’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대본을 사전에 충분히 읽고 원고에 표시를 하면 좋겠다.)

“최고난도(最高難度)” (00.7.23. EBS TV ‘장학 퀴즈’ 공동 진행 ○ 아나운서(남)은 ‘최~고난도’, 공동 진행 개그맨(여)은 ‘최~고~난도’라고 했는데, ‘최고~난도’라야 정확하다.)

“정부는 ‘예금 부분~보장제’를 ---, 예금 부분~보장제의 시행 ---” (00.9.28. K1TV ‘마감 뉴스’ ○ 아나운서, 00.10.30. K1TV 뉴스9 제주 뉴스 ㄱ 기자(남), ‘신탁 부분’이 아닌 ‘예금 부분’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금을 부분 보장한다’는 ‘예금~부분~보장제’라야 한다.)

“문제가 있는~기업의 경영진을---” (00.7.16. MBC TV ‘뉴스 데스크’ 비 앵커(남))은 “문제가 있는 기업의~경영진을---”로 읽어야 더 정확한 뜻이 된다. ‘문제 경영진’이 아니고 ‘문제 기업’을 말하는 것이

었다.)

“모:~기업(母企業)의 ---” (00.10.3.17:30 MBC TV 뉴스 ○ 기자(여), 모:(某) 기업(企業)의 ‘某’는 관형사이므로 두 단어로 읽어야 하지만 ‘母企業’은 붙여야 한다. ‘母企業’의 뜻이나 제대로 알고 말하는지의심스럽다.)

“(프랑스가 보관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 ---” (00.10.19.23:40 K1TV ‘뉴스 라인’ ㄱ 공동 앵커(남), ‘외규장각~ 도서’라야 하는데 구태여 떼어 읽으려면 ‘외~규장각~ 도서’라야 한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북한을~ 방문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 (00.10.27.10:00 MBC R 뉴스 ㄷ(스(?)) 아나운서(여), “(앞으로) 한 달 안에~ 북한을 방문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로 읽어야 의미 전달이 더 순조롭다. ‘방문 여부 결정’을 한 달 안에 한다’는 것이지 ‘한 달 안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뜻이 아니니 말이다. 글이 아니고 말이기 때문에 후자처럼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 5년 동안~ 고장난~ 형광등은~ 모두 무료로 교체됩니다.” (00.10.31.09:50 K1TV 제주 뉴스 ㄱ 기자(남), ‘5년 동안’이 ‘형광등은’ 다음에 와야 하지만, 이대로라면 “--- 5년 동안~ 고장난 형광등은~ 모두 무료로 교체됩니다.”로 말해야 오해의 소지를 줄인다. 고장이 5년 동안 나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일 은행’의 해외 매각은) 한국 은행~사상~ 처음으로 ---” (00.11.19. K1TV ‘일요 스페셜’ 해설 ㅎ 성우(기자(?), 남), ‘한국 은행’이 아니고 ‘한국의 은행’이란 뜻이므로 “한국~은행사상~ 처음으로 ---”라야 의미 전달이 바르게 된다.)

“--- 노조에 끝까지 버티면~ 얻을게 있다는 의식을 심어줘 ---” (00.12.19. K1TV 뉴스9 보도 기자(남), 노조가 버티는 것이므로 “--- 끝까지 버티면 얻을게 있다는 의식을 노조에 심어줘 ---”가 바람직하고, 이대로라면 “--- 노조에~ 끝까지 버티면 얻을게 있다는 의식을 심어줘 ---”라야 정확한 뜻이 전달된다.)

“蓋以~靑高~之節人”(01.1.20. K1TV ‘역사 스페셜’ ○ 진행자(남), 한문을 읽는데 기본적인 句點이나 讀點을 틀리는 일은 너무나 많다. 이 경우는 당연히 “蓋以~靑高之~節人”으로 읽어야 한다. 한문에 밝지 못한

이들은 방송 전에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끝으로, 문장에서 표준 억양(인토네이션(intonation))을 정립하여 모형을 제시하고 교육·홍보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활용되는 것이 있으나, 치밀한 표준 모형을 세워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데는 소홀한 점이 있다.

4. 速 度

시대의 영향이겠지만 우리말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1분에 200자 원고지 2장 빠르기' 운운은 지난날 이야기가 되었다. 뉴스를 하는 아나운서의 말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00.8.15. K1TV '마감 뉴스'(○ 아나운서(남))는 발음이나 억양이 비교적 좋았으나, 말의 속도가 조금 빨라 아쉬웠다. 전반적인 추세는 말이 자꾸 빨라지고 있지만, 적어도 방송의 언어 사용은 속도를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

III. 틀린 단어 사용에 따른 발음 오류

틀린 단어의 사용에 따른 발음의 오류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이, 히'와 '사이 시' 오용에 따른 발음 잘못은 심각하다. 평소 우리말에 무심한 결과일 것이다. 여기에서 발음과 직결되는 말 중 그 일단을 조금 보인다. () 안은 맞는 말이다.

(판울) 가름하다(가늠하다), 강수량(강:우량-여름), 개이다(개다), 개피(개비), 갯벌과 개펄, 거칠음(거칠), 걸맞는(걸맞은), 걸쭉한(입담)(걸쭉지근한), 경신과 갱신(논란이 있는 말임), 고동[卷貝](고동), (첫 잔은) 고사레(고수레), 곱배기(곱빼기)(이 경우는 발음에 차이가 없다.), 구좌(口座)(계:좌(計座)), 금새(금세), 구렛나루(구레나룻), (행운이) 깃들다(깃들이다)(논란이 있는 말임), 깊숙히(깊숙이), 까다로와(까다로워), 깡

술(강술(強-)), 깨끗이(깨끗히), 깨끗치(깨끗지), 깨끗히(깨끗이), 나는 [飛](나는), 나지막히(나지막이), 남비(냄비), 날라가다[飛](날아가다), 날라들(오)다(날아들(오)다), 낮설음(낮설), 내노라 하다(내로라 하다), 넉넉치(넉넉지), 늘이다와 늘리다, 늦깎이(늦깎이), (술·김치를) 담다(담그다), -던과 -든, 덤테기(를 쓰다)(덤터기), 들리다(들르다), 따놓은(따논) 당상(堂上)(떼어놓은(떼어논) 당상), 딱이(딱히), 떡볶이와 떡볶기, 띠어내다(떼어내다), -르런지(-르는지), -로서와 -로써, (강화도에 있는) 마니산(마리산), 머문·머무는(머무른·머무르는), 멀지않아(머지않아), 먹거리(먹을거리-논란이 있음), 명들은(명든), (세살)바기(배기), 바람[望](바람), (점)배기(박이), 발자욱(발자국), 밤붓짐(단복(單襟)짐), 번번(番番)이(=여러 번 다)와 번번히(구김살이 없이, 생긴 것이 양전하게, 지체가 상당하게), 벌:이다와 벌:리다, (돈을) 벌은(번:), (---을) 본(本)따(본떠), 불상(성)사나운(불쌍사나운), (태풍이) 비껴가다(비:켜가다), 빌다[貸](빌리다), 빼곡이(빼곡히), 뻑뻑히(뻑뻑이), 사체(死體)(시체(屍體)), 산산(散散)히(산산이), 살지다와 살찌다, 삼가하다(삼가다), 상치(상추), (기분이) 상큼하다(상쾌하다), 서슴치(서슴지), 설레이다(설레다), 성대 묘사(성대 묘사(聲帶模寫)), 소근거리다/대다(소근거리다/대다), 솔직히(솔직히), 수북히(수북이), 각종 숫자(數字)들, 시라소니(스라소니), 실랑이(승강이(昇降-)), 심상치 않다(심상찮다), -십시오(-십시오), 쑥스럽다(쑥스럽다)(이 경우는 발음에 차이가 없다.), 아스라히(아스라이), 안스럽다(안스럽다)(이 경우는 발음에 차이가 없다.), 알맞는(알:맞은), 애끓는과 애끓는, 어떤(애:먼), 연육교(連陸橋)(연륙교), 열은(연:), 영글다(여물다), 오직 (종으랴)(오죽), 오랜동안(오랫동안), 용납치(용납지), 우스개소리(우스갯소리)(이 경우는 발음에 차이가 없다.), (한) 움큼(움큼), 윗분(웃분), 으로서와 으로써, 익숙하지 또는 익숙치(익숙지), (돈) 있겠다 (학벌) 좋겠다(있겠다, 좋겠다), 잇달다와 잇따르다, 자연스런(자연스러운), 장마비(장맛비)(이 경우는 발음에 차이가 없다.),

8) "유종근 지사의 '장미빛 환상'"(00.11.20. 교수 신문 191호 "새만금 사업 호도하는 지역언론·지방정부"(이중호 교수의 글)의 중간 표제, 편집진에서 달았을 텐데 '장맛빛' 이라야 옳다.)

장미빛(장밋빛)(이 경우는 발음에 차이가 없다.)⁸⁾, (땀에) 절은(전:), 정한수(정화수(井華水)), (수입이) 째잘하다(짜잘하다), 찹찹하다(찹찹하다), 차돌배기(차돌박이), 찰지다(차지다), 촉촉히(촉촉이), 채와 째, 추켜세우다(정도 이상으로 칭찬함)(치켜세우다, 추어올리다), 치루다(치르다), 통털어(통틀어), (길이) 패이고(패:고), (이삭이) 필(떨), 피납(被拉)(피:랍), 하마트면(하마터면), 햇님(해님), 햇길래(햇기에), 허접스레기(허섭스레기), 험은(현:), 훌훌 단신(헐헐 단신), 활인(할인(割引)), 후덥지근하다(후텁지근하다), 희희낙낙(희희낙락)(이 경우는 발음에 차이가 없다.), 희노애락(희로애락(喜怒哀樂)) 등등.

지면 관계상 다 보일 수는 없으나 이나마 제시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으면 하는 충정에서다. 그릇된 단어 때문에 발음이 틀린 경우를 몇 예만 줄여서 든다. 자주 틀리는 말은 예를 더 들었다.

“강수량”(00.6.26. K2TV ‘클릭! 날씨@생활’ ◦ 기상 캐스터(여), 장마 이야기이므로 강우량이라야 정확하다.)

“비 개인 오후 ---” (00.7.26. K1TV ‘수요 기획’ ㄱ 성우, 글·구성 ◦ 작가, 작가 탓인지도 모르겠으나 혹 작가가 틀렸어도 이 정도는 성우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날씨가 개이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00.11.11. K1TV ‘내셔널 지오그래픽’ 해설 ㄱ 성우(남)·번역 스 씨(여))

“---이십 개피 담배 한 갑을---” (00.5.28. K2TV ‘일요일은 즐거워’ 해설 성우(남))

“(차 안의 담배는) 너댓 개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7.1. K2TV ‘공개 수배 사건 25시’, 진행 ㅂ 기자)

“---(새만금 사업에서) 갯벌[갯뻘/개뻘] 보존을 위한---” (99.1.15. K1TV 뉴스9 전주 뉴스 ◦ 앵커, ‘갯벌’은 조수가 드나드는 모래톱이고 ‘개펄’은 물가의 개흙 땅이니, ‘모래펄’은 모래가 덮인 개펄을 말한다. 진흙 밭에서 꼬막을 잡는 체험이므로 ‘개펄’이라야 정확하다.)

“아름다운 섬과 갯벌[뻘/개뻘]”(99.11.5. K1TV ‘웰컴 투 코리아’ 예고(성우), ‘개펄’이라야 옳다.)

“황금 개필”(00.11.2. K1TV ‘현장 르포 제3지대’(황금 개필-오이도의 가을) ㅂ 성우(남), 제목부터 정확하여 반가웠다. 조개를 채취하는 진흙 펄발 이야기이므로 ‘개필’이 정확하다.)

“--- 광대함, 거칠음 등의 이미지가---”(99.1.24.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남), ‘거칠다’의 명사형은 ‘거칠’이니, 발음은 [거침]이다.)

“--- 사회지도층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00.4.23.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ㄷ 기자, ‘걸맞다’는 형용사이니 ‘걸맞은’이라야 한다.)

“--- 유럽 축구 명성에 걸맞는 완벽한 방송 ---”(00.6.10. K1TV 뉴스9 스포츠 뉴스 브뤼셀=ㅅ 기자)

“(이에) 걸맞는 재량과 결정권이 ---”(00.12.6.13:00 MBC R 뉴스 ㄱ 아나운서(남))

“--- 양적 팽창에 걸맞는 ---”(00.12.17. K1TV 뉴스 9 ㅂ 기자(남))

“(신문이) 여기에 걸맞는 ---”(01.1.11. MBC TV ‘100분 토론’ ㅇ 사회자)

“--- 기록을 경신(更新)했습니다.”(00.4.30. K1TV 뉴스9 스포츠 뉴스 ㅂ 기자, ‘고쳐 새롭게 했다.’는 ‘경신’보다, ‘다시 새롭게 했다.’는 ‘갱신’이 더 적확하다고 본다. 현존 국어 사전에 ‘기록 경신’으로 용례가 나와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

“--- 소리와 고동 등을 살포해 ---”(99.11.26. K1TV 뉴스9 제주 뉴스 ㅇ 아나운서(여), ‘고동’은 기계를 움직여 활동시키는 장치이고, 卷貝의 총칭은 ‘고동’이다.)

“다들기는 고동인데 ---”(00.7.18 MBC R ‘여성 시대’ ㄱ 공동 진행자(남), ‘고동’이라야 한다. 기왕이면 “고동에 속하는데 ---”가 더 좋다.)

“구렛나루라 그러면--”(00.6.29. K1TV ‘아침 마당’ ㅇ 공동 진행자(남))

“청약 통장의 구좌(口座) 수도---”(00.4.30. K1TV ‘경제 전망대’ 해설 아나운서(여), ‘구좌’는 ‘계좌(計座)’의 일본식 한자어이다.)

“야생벌이 산사에 깃든 까닭은”(99.12.17. MBC TV ‘MBC 스페셜’

프로그램(program) 제목, 최근 출간된 「국어연구원」에는 ‘깃들다’와 ‘깃들이다’가 따로따로 표제어로 나와 있다. 잘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설령 여기에 따르더라도 ‘깃들인’ 이라야 한다. 작가의 무지와 무관심 탓인지도 모르겠다.)

“--- 이탈리아 깊숙히[깊수키]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00.5.22. K1TV ‘한민족 리포트’ 해설 ㄱ 성우)

“--- 까다로와지고 있어서--” (00.4.8. MBC TV ‘경제 매거진’ 〇 기자, 이렇게 기본적인 활용도 틀리는 일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

“--- 깨끗이[깨끄치] 승복해야 한다고 ---” (00.11.13. K1TV ‘뉴스 네트워크’ 제주 뉴스 ㅅ 앵커(아나운서, 남))

“--- 곳곳이[꾼꾸치] 지켜온 ---” (00.10.19.09:10 K1TV ‘아침 마당’ 〇 공동 진행자(남), ‘곳곳이[꾼꾸시]’ 라야 옳다.)

“열 번을 날라서[飛] 모두 천 점 만점으로 ---” (80.8.12. KTV 뉴스 행글라이더 대회 보도 기자)

“(강풍에) 창고 지붕이 날라가는[飛] 등 ---” (00.9.1. K1TV 뉴스9 제주 뉴스 ㄱ 기자)

“별은 꿀을 채취하러 어디까지 날라갑니까[飛]?” (00.11.4.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동 진행 〇 아나운서(남))

“--- 요금 청구서는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01.1.10. K1TV 뉴스9 ㅅ 기자(남))

“남비 바닥을 ---” (00.9.8. K1TV ‘VJ 특공대’ 해설 ㅂ(?) 성우(남), VJ ㅅ 씨, 구성 작가 탓인지도 모르겠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성우가 바르게 말해야 한다.)

“--- 내 것이 아닌 것[義足]을 달고 다녀야 하는 낯설음은 ---” (00.3.22. K1TV ‘수요 기획’ 해설 ㄱ 성우, ‘낯설은[낯썰은]’ 이라야 옳다.)

“--- 물 설고 낯설은 ---” (00.4.25. MBC TV ‘PD 수첩’ ㄱ PD, ‘낯선[낯썰]’ 이 옳다.)

“환자들은 새로운 호스피스(hospice)에게는 낯설음을 느낀다. --- 환자들이 그것마저 낯설은지 모른다.” (00.9.19. K1TV ‘병원 24시’ 해설 ㄱ 성우(남), 글·구성 〇 작가(여), 작가 탓인지 성우 탓인지 궁금하다. ‘낯설음, 낯선지’ 라야 옳다.)

“내노라 하는 ---” (00.4.9.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ㅂ 기자, 00.5.1. K1TV ‘아침 마당’ ㅇ 공동 진행자(남), 00.9.8. K1TV ‘VJ 특공대’ 해설 ㅂ(?) 성우(남) VJ ㅅ 씨, 작가 역시 책임이 있을 것이다. ‘로라’는,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동작을 의식적으로 쳐들어 말할 때 ‘-다’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형 서술격 조사이다. 따라서 ‘내로라 하는’ 이라야 한다.)

“세계 각국의 내노라 하는 검색 사이트(site)들 ---” (00.12.3. K1TV ‘일요 스페셜’ 글 ㅈ(여) 씨, 해설 ㅈ 성우(남))

“--- 너다섯 장씩 ---” (00.7.10. MBC TV ‘뉴스 데스크’ 제주 뉴스 ㅅ 기자, ‘탐라순력도’의 속지 보도, ‘두어(두세), 서너’ 처럼, 수를 말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이다. ‘너댓, 네다섯, 너더댓, 네댓’ 등으로 써야 한다.)

“--- 넉넉치 못한 살림에---” (00.4.28. K1TV ‘현장 르포 제3지대’ 해설 ㅂ 성우(남),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한글 맞춤법’ 제40항). 또,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동 붙임2). ‘넉넉하지 않다→넉넉지 않다’를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넉넉지’가 옳다.)

“넉넉치 않은 점심 시간 ---” (00.11.10. MBC TV ‘김국진의 여보세요’ 중 ‘다큐 김국진의 발견’ 진행 ㄱ 개그맨(gagman)⁹⁾(남))

“근무(勤務) 년수(年數) ---” (00.4.29. K1TV 뉴스 ㄱ 기자, ‘근무 연수[근무 연수]’라야 한다.)

“--- 휴일을 늘였다[느릴따] 줄였다 해 왔습니다.” (98.12.20. MBC TV ‘뉴스 데스크’ ㄷ 기자, ‘늘이다((延, 垂) 본디보다 길게 하다., 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다.)’는 ‘고무줄을 늘인다.’ 처럼, ‘늘린다((擴張, 增大) 늘게 하다.)’는 ‘수출량을 더 늘린다., 인구를 늘린다.’ 처럼 쓴다.)

9) 코미디언(comedian), 익살꾼을 말하는 ‘개그맨’은 틀린 영어이지만(“--- ‘gagman’이라고 하면 ‘입에 재갈을 문 사람’ 정도밖에는 아무 뜻도 없다. 그것도 ‘gagedman’이라고 해야만 그렇게 된다.”(안정효, 「가짜 영어 사전」, 현암사, 2000. 16쪽)), 딱히 대처할 말이 적당하지 않아 우선 그대로 쓴다. ‘핸드폰(handphone)’처럼, 틀린 말인데도 굳어지고 있으므로, 순화가 시급한 말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을) 늘이기로[느리기로] 했습니다.”(00.5.12. MBC TV ‘뉴스 데스크’ ㄱ 공동 앵커(여), ‘늘이다’와 ‘느리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요 뉴스(news)를 진행한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마늘값 폭락에) 지원을 늘이는[느리는] 등 ---” (00.7.7. MBC TV ‘뉴스 데스크’ ㅇ 기자)

“(정부는 기름 보유분을) 늘일[느릴] 방침입니다.”(00.9.13.19:20 K1TV ‘뉴스 네트워크’ ㅇ 공동 앵커(여))

“신체 활동을 늘이는[느리는] 것 ---”(00.10.10.10:20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동 진행 ㅈ 아나운서(여))

“--- 2003년까지 30퍼센트로 늘이고[느리고] ---” (00.10.10. K1TV 뉴스9 ㅇ 기자(남))

“--- 늦깎이[늘까기](로 그림을 시작했다.)” (00.4.19. K1TV ‘수요 기획’ 해설 ㅂ 성우, 00.6.11. K1TV ‘뉴스 네트워크’ ㅈ 앵커(아나운서, 남))

“(휠체어 농구단의) 김 코치는 늦깎이[늘까기] 선수였다.”(00.4.21. K1TV ‘현장 르포 제3지대’ 해설 ㅂ 성우(남), ‘늦깎이’가 적합한 어휘 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오랜 경력의 이 성우는 왜 늘 [늘까기]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떡볶이’는 [떡볶기]인가? 혹 [늘까기]는 [늘까기]와 다른 뜻이 있는가?)

“--- 불혹의 나이에 늦깎이[늘까기] 결혼식을 올렸다.” (00.6.6. K2TV ‘TV 명인전’ 해설 성우(남))

“누가 말던 간에 축산업은 ---” (00.12.18. MBC TV ‘MBC 스포츠 특선’ 해설 ㅇ 성우(남), 글 ㅇ · ㅈ 작가)

“오늘도 창업 투자 회사에 들린다” (00.12.3. K1TV ‘일요 스페셜’ 해설 ㅈ 성우(남), 글 ㅈ(여) 작가)

“---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01.1.4. 문화일보 <레저>면)

“딱히[따기] 하소연할 데가 없는---” (00.7.9.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ㄱ 기자, 딱 잘라서 무어라 하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인 ‘딱히 [따기]’를 ‘딱이’로 알고 있는 듯하다.)

“다리에 피부를 띠어내기로 했다.” (00.7.19. K2TV ‘병원 24시’ ㄱ 성우(남))

“(6박 7일 동안에) --- 할 수나 있을런지.” (00.5.3. K2TV ‘인간 극장’ 해설 ㅂ 성우(여), 글·구성 ㅅ 작가)

“--- 어떻게 화답해 줄런지.” (00.5.22. K1TV ‘아름다운 실버’ 해설 ㅅ 아나운서(여), ㅎ 작가 탓인지도 모르나 만약 그렇더라도 바르게 고쳐 읽어야 한다.)

“--- 미래의 예술일런지 모릅니다.” (00.12.24. MBC TV ‘뉴스 데스크’ ㅅ 기자(문화부장))

“--- 명들은 것 같은데요?” (98.12.20. K2TV ‘긴급 구조 119’ 진행자)

“--- 하루만 잘 버텼으면 하는 바램[望]뿐이다.” (00.3.31. K1TV ‘제3지대’ (청도 소싸움 이야기) 해설 ㅂ 성우(남))

“--- 간절한 바램[望]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00.8.11. K1TV ‘VJ 특공대’ 진행 ㅎ 아나운서(여))

“--- 이산 가족들의 바램[望]입니다.” (00.12.3. K1TV 뉴스9 ㅅ 기자(남))

“--- 밤붓짐 ---” (00.5.31. K1TV 극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ㄴ · ㅂ 텔런트(여), “單襟衫”인데, ㅎ 작가 탓인지는 알 수 없다. 붓짐은 꼭 밤에만 싸는 것인가?)

“---(돈을) 얼마나 벌으셨습니까?” (00.11.12. K1TV ‘체험 삶의 현’ --- 자원협력외교를 적극적으로 벌리겠다 ---” (80.6.29. TBC TV ‘TBC 석간’ ㅂ 앵커(남), ‘벌이다’ 는 일을 배풀어 놓거나 물건을 늘어 놓는 것이고, ‘벌리다’ 는 둘 사이를 넓히는 것을 말한다.)

“--- 대대적인 간척 공사를 벌려 ---” (99.12.4.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 ㄹ 배우(남))

“--- 협상을 벌릴 예정입니다.” (00.5.22.09:30 K1TV 뉴스 ㅅ 기자)

“--- 불상사나운 ---” (00.7.7. K1TV ‘VJ 특공대’ 해설 성우)

“--- 여론의 힘을 빌어 휴대폰 사용을 ---” (99.1.15. K1TV 뉴스9 ㅅ 기자, ‘표준어 규정’ 제6항을 볼 일이다. ‘빌려 주다, 빌려 오다’ 다 ‘빌리다’ 라야 한다.)

“(잡초가) ㅂㅂㅂ[ㅂㅂ고기] 들어 차 있었습니다.” (99.12.4.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 ㄹ 배우(남))

“--- 달력에는 수술 스케줄이 ㅂㅂㅂ[ㅂㅂ고기] 적혀져 있었습니다.”

(00.6.6. MBC TV 'PD 수첩' □(○(?)) PD)

“김포에 아파트가 **꽤**곡히[**꽤**고기] 들어서 있습니다.” (00.6.28. K1TV 뉴스 9 ㅂ 기자(남))

“--- **꽤**곡히[**꽤**고기] 들어선 ---” (00.12.17. K1TV 뉴스 9 ○ 기자(남), 정확히 발음하여 반가웠다.)

“(우간다에 종말론 신도들의 집단 자살) 사체(死體)가 ---” (00.3.28.09:40. K1TV 뉴스 ㅂ 아나운서(여), 기자의 잘못된 원고를 읽은 것이겠지만 이 정도는 바로잡아 주었으면 하는 욕심이다. '사체'는 일본말이고, 우리말은 '시체(屍體)'이다.)

“사체에 속옷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00.4.4. MBC TV 'PD 수첩' ㄱ PD)

“그러면 이 사체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00.5.20. 제주 MBC TV '4·3 특별 기획' ㄱ 기자)

“--- 돼지 사체를 방기(放棄)---” (00.5.25.10:50 K1TV 뉴스 앵커(남)와 ㅂ 기자(남))

“사체가 발견된 곳은 ---” (00.10.5. K1TV '현장 르포 제3지대' ㅂ 성우, 글·구성 ㄷ 작가)

“사체” (01.1.11. MBC TV '마감 뉴스' 앵커(남), 대형 할인점 화재와 살인 사건을 보도한 두 기자(남))

“살진 여성들이여 석달이면 20kg 감량” (00.12.19. 제주일보, '살지다(형용사:살이 많고 튼실하다. 땅이 기름지다. 과실이나 식물의 뿌리 따위에 살이 많다.)'는 '살진 암소, 살지고 싱싱한 물고기'처럼 사람에게는 잘 쓰이지 않으므로, '살찌다(동사:몸에 살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다(예)살찐 뚱뚱한 사람). (비유적으로)힘이 강하게 되거나 생활이 풍요로워지다(『표준 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1999).’를 써서 “살찐 여성들이여 ---”라야 적확하다. '살찐 놈 따라 붓는다.'는 속담을 상기하면 좋겠다. 많이 쓰는 말이라서 신문의 예를 하나 들었다. “살진 여성들이여” 다음에는 문장 부호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은 별론한다.)

“--- 지나친 겨울 난방을 삼가하고 ---” (99.11.11.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 공동 진행 ㄱ 아나운서(남), 원형이 '삼가다'이므로 '삼가고'라야 한다. '삼가하다'라는 우리말은 없다.)

“--- 자동차 운행을 삼가해야 됩니다.” (00.6.15. K2TV '클릭! 날씨

@생활' ○ 기상 캐스터(여))

“비판은 하되 비난은 삼가하자” (濟大新聞(00.10.10. 635호) 사설, 하도 많이들 틀리니 신문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았다. 이 정도이면 사설의 내용도 부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쌈밥은) 상치에다가 ---” (00.8.7.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ㄱ 리포터(여))

“--- 언동도 서슴치 않았습니니다.” (80.6.8.19:20 TBC TV 뉴스 아나운서(남), 언행을 자꾸 머뭇거리며 망설이는 것은 ‘서슴다[-따]’이다. 언행에 거칠 것이 없는 것을 ‘서슴없다’라 하지 않는가? 따라서 ‘서슴지’라야 옳다.)

“--- 엽기적 행동도 서슴치 않았습니니다.” (99.10.29. MBC TV ‘마감 뉴스’ ○ 기자)

“--- 법을 초월한 실력 행사를 서슴치 않았습니니다.” (00.11.22. KITV 뉴스9 ㅂ 기자(남))

“--- 심지어 신체적인 접촉도 서슴치 않았습니니다.” (01.1.8. MBC TV ‘뉴스 데스크’ ㅂ 기자(남))

“어떤 명품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할까” (00.10.8. K1TV ‘TV 쇼 진품명품’ 진행 ○ 아나운서(남),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는 것은 ‘설레다’이다. ‘이’가 첨가될 이유가 전혀 없다. ‘개다’와 같은 예이다.)

“--- 설레임으로 가득 차 보였다.” (00.3.29. K1TV ‘수요 기획’ ㄱ 성우(남))

“--- 아내 흥연성에게도 남다른 설레임이나 ---” (00.4.19. K1TV ‘수요 기획’ 해설 ㅂ 성우)

“온갖 설레임으로 존재해 왔던 아빠---” (00.8.1. K1(?)TV ‘병원 24시’ 해설 ○ 아나운서(여))

“보고 또 본 강이건만 금강은 또 정명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 (00.12.15. ‘KBS 네트워크 기획’ 해설 ㄱ 성우(남) 구성 ㄴ 작가(여))

“--- 솔직히[솔지기] 남는 게 없다.” (00.7.26. EBS TV ‘다큐 이 사람’ 해설 ㄱ 성우)

“(기계는) 먼지만 수북이[수부키] ---” (00.5.9. K1TV 뉴스9 진주=ㄱ 기자)

“환자들이 세네 시간씩 기다려 ---” (00.10.10.09:40 K1TV 뉴스 ㄱ 기자, ‘서너’ 라야 옳다.)

“우리 나라에서 호랑이, 시라소니 ---” (00.7.3. EBS TV ‘하나뿐인 지구’ 해설 성우(남), 작가 탓인지도 모르나 이 정도는 바르게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표범이나 시라소니의 발자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00.10.9. K2TV ‘뉴스 투데이’와 같은 날 K1TV 뉴스9 ㄱ 기자(남))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하게 밟고 시동을 거십시오.” (99.8.5. K1TV 한국 자동차공업협회 협찬 공익 캠페인 B 성우, “--- 거십시오.”라야 한다.)

“보직에 알맞는 사람을 뽑는---” (00.7.7. MBC TV ‘뉴스 데스크’ ㅈ 기자, ‘알맞은’ 이라야 한다. ‘결맞다’와 같은 예이다.)

“어떤 사람을 ---” (00.10.2. K1TV ‘아침 마당’ ㅅ 공동 진행자(남), 엉뚱하게 딴 것을 말하는 관형사는 ‘애면[애:면]’이다.)

“(우승컵 중) 여섯 일곱 개를 ---” (00.5.1. K1TV 뉴스9 ‘스포츠 뉴스’ ㅈ 기자(남), ‘예닐곱 개’라야 맞다.)

“--- 채영 씨에게 마음을 열은 모양이다.” (00.9.19. K1TV ‘병원 24시’ 해설 ㄱ 성우(남), 글·구성 ㅅ 작가(여), 장단음은 차치하고 ([연:]이 맞다.) 우리말의 기본 활용도 틀리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우나 구성 작가 육성 방식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생방송도 아닌데, 왜 편집할 때 틀린 점을 고려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 타협은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01.1.11. MBC TV ‘마감 뉴스’ 해설 위원(남))

“우스개소리도 하고 ---” (00.7.25. K1(?)TV ‘병원 24시’ 자막)

“--- 지식인으로써, 여성으로써 ---” (00.12.13. K1TV ‘수요 기획’ 해설 ㅈ 아나운서(여), ‘-(으)로서(자격)’와 ‘-(으)로써’(도구)의 구분은, 재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익숙치 않은 수험생들에게 ---” (00.11.13. K1TV 뉴스9 ㄱ 기자(여), ‘넉넉지’와 같은 예다.)

“--- 잇단 로비 의혹에---” (00.5.21.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ㄱ 기자, ‘잇따른’이 정확한 말이다. ‘잇달다’는 타동사(ㄹ 불규

칙)이고 '잇따르다'는 자동사(으 불규칙)이다. 뜻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쓰임이 달라진다. 따라서 '잇따른'이 적합한 말이다. 예컨대 “--- 여중생 등을 잇따라 성폭행한 ---” (00.10.7. 제주일보 ㅎ 기자)에서는 '잇달아'라야 정확하다.)

“(경기가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잇단 진단에 대해서 ---” (00.7.30. K1TV 뉴스9 ㅈ 공동 앵커(남))

“자연스런 물길에 뒤틀린---” (00.7.24. K1TV 뉴스9 주요 뉴스 토크 ㄱ 아나운서(남)와 ㄱ 공동 앵커(남), '-스럽다'는 ㅂ 불규칙이므로 '-스러운'이라야 한다. 즉 활용할 때 '우'가 줄 수 없는 말이다. 만약 '스런'이 맞다면 '자연스러니, 자연스러어서'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자연스러운'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은가?)

“땀에 절은 옷을---” (00.5.1. K1TV '한민족 리포트' 해설 ㄱ 성우, 글·구성 ㅅ 작가)

“애고! 기분이 찝찝하고 안 좋네.” (99.11.7. K1TV 극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ㄱ 텔런트(남), 텔런트의 극 중 대사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그냥 말 것인가? 그러기엔 너무 부정적이고 영향력 크다. '찝찝하다'는 '찝찝하다'라야 옳다.)

“괜히 찝찝하게 만들어.” (00.5.6. SBS TV '순풍 산부인과' (재) 의사 딸 역의 텔런트)

“찰지고 기름진 밥맛!” (00.11.4. MBC TV ㅅㅅ 밥술 선전 성우(목소리 출연, 여), '찰지다'는 '차지다(=끈기가 많다.)'의 경상 방언이다.)

“그의 생각을 송두리 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00.5.9. K2TV '마이웨이' 해설 ㅈ 성우, '송두리째'라야 한다.)

“월드컵 이대로 치를 순 없다” (00.7.21 제주 공항 탑승구 부근 공익 광고(캠페인) 전광판)

“--- 조용하게 치를 방침---” (00.9.22.09:45 K1TV 제주 뉴스 ㅅ 아나운서(여), 쥐야 할 돈을 내주거나 무슨 일을 겪어 내는 것은 '치르다'이다. 우리말에 '치루다'는 없다.)

“--- 통털어 ---” (00.7.3. K1TV '한민족 리포트' 해설 ㄱ 성우 글·구성 ㅅ 작가, 00.7.17. K2TV '맹수의 낙원' 해설 성우(남))

“피랍(被拉)[피납] 다음날 ---” (00.3.21. MBC TV 'PD 수첩' ㅈ PD)

“당신은 나의 낮의 햇님이에요” (00.3.30.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 일’ 자막)

“허접쓰레기 같은 백인 여자겠소?” (00.9.24. K1TV 영화 ‘라스트 댄 스’ 흑인 남자 역의 더빙 성우, ‘허접쓰레기[허접쓰레기]’ 라야 한다.)

“많은 약을 먹다 보니 소화기가 혈은 탓이다.” (00.3.29. K2TV ‘병원 24시’ ㄱ 성우(남))

“홀홀 단신 넘어오셨군요.” (00.9.17. K1TV ‘전국 노래 자랑’ ㅅ 사회 자(남), 헐헐 단신(子子單身)이라야 옳다.)

“할인(割引) 매장” (00.7.17. K2TV ‘웹 매거진’ ㄷ 리포터(남), ‘割引’의 음은 ‘할인’이다.)

“---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00.8.8. K2TV ‘클릭! 날씨@생활’ 진행 ㅎ 기상 캐스터(여), 불쾌하게 무더운 기운이 있으면 ‘후텁지근하다’고 하며, 몹시 후텁지근하면 ‘후텁지근하다[-찌-]’고 한다.)

“섬의 희노애락이 겹쳐 ---” (00.7.3. K1TV ‘아름다운 실버’ 해설 ㅎ 성우(여))

“희노애락을 ---” (00.7.14. K1TV 스포츠 뉴스 ㅈ 기자)

IV. 결 론

현행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항). 그런데 지금까지 본 대로, ‘표준 발음법’에 치밀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해 혼란을 야기하는 점도 많다. 개개의 단어를 사정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거니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 조항을 좀더 자세하게 하고 예시 단어도 보완하여 논란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외래어 발음에 대한 명시적 규정(예시)을 두어 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 바람직하기는 ‘표준 발음법’만 충분히 공부하면 발음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두꺼운 해설서를 보고도 헛갈리는 실정이니 일차적으로 발음법에 큰 문제가 있다. 우리말글이 어려운 것은, 국어의 체계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허술한 어문 규정과 권위 있는 사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에 언론 매체 종사자와 지식인의 무관심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언어란 남들 쓰는 대로 따라 해야 하는 것이니, 사소한(?) 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식의, 지극히 표피적인 사고가 지식인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우리말글의 길잡이인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지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지식인과 교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제작 뿐 아니라 보도까지 하는 PD와 방송 기자는 특히 늘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고 틀린 부분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나운서들도 정확한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드라마 PD는 자신의 노력이나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출연자의 발음이 틀렸을 때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장면을 다시 촬영해야 한다는 바람이다. 무분별한, 가수들의 이른바 ‘토크쇼’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구성 작가 뿐 아니라 드라마 작가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원고를 보고 읽는 해설자(성우, 아나운서 등)나 극에 출연한 탤런트의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리포터를 비롯한 출연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비 때문인지 방송 전문인보다 리포터를 많이 쓰는 풍조도 바뀌어야 한다. 언어 훈련을 받지 않은 연예인은 말할 나위도 없다. BBC 발음국은 출연자들의 선정에도 관여를 한다고 들었다. 방송 출연자는 바른 발음과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당연히 출연을 삼가야 한다.

오래전부터 방송을 보거나 들으면, 틀린 발음과 어휘에 신경이 곤두서고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우리말에 관심이 없고 규준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작금의 언어 생활을 보이기 위해 이 글에서는 번거롭지만 구체적인 실례를 들었다.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필자 사정으로 검토하지 못해 아쉽다. 오랫동안 주의 깊게 방송을 들어 온 필자의 결론은, 우리말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틀린 점을 이 글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그나마 비교적 발음이 정확한 방송인을 몇 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

지역 방언식의 어휘 사용에 따른 발음 문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석이라면 이런 말투가 정감과 일체감을 주겠지만, 적어도 방송에서는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어떻게 적절허니[적절 허니] 대응할 ---” (99.1.9. KITV ‘시사 토론’ ㄴ 사회자)의 경우, ‘적절하게(적절히)’가 아닌 ‘적절허니’는 특정 지역의 어투다. 그리고 이 경우 ‘ㅎ’이 묵음은 아니지만 많이 약화되는 것이 바른 발음인데(‘흔하게’와 같은 예다.), ‘적절’과 ‘허니’를 분리하여 끊어서 발음하였다. 적어도 방송인이라면 표준어를 쓰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연음하지 않고 무조건 단어 혹은 글자마다 끊어 읽어 마치 외국어를 읽는 듯한 묘한 풍조가 만연해 있는 점은 정말 안타깝다. 가령 ‘낮 한 때’는 [낮 한때]로 발음하는 것을 자주 듣는데, [나탄때]라야 옳다. ‘옷 한 벌[오탄벌], 꽃 한 송이[꼬탄송이]’의 예와 같다(제12항 붙임2). 심지어 ‘가슴 아픈[가슴/아픈], 승리[승리]’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기자도 있었다. [가슴마픈], [승니]라는 자연스러운 우리말은 어디 갔는가? 격음화(ㄱ+ㅎ=ㅋ 식의)를 시키지 않는 말버릇 또한 바로 고쳐야 한다. 의식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방송에서는 억양이 대단히 중요한데 억양이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인 방송인이 너무 많았으며, 고저장단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방송 전에 원고에 미리 고저장단음을 비롯한 정확한 발음 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바른 발음이 더욱 절실하다. 어린이 프로그램 출연자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해야 하고 특별한 노력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방송 종사자와 방송 출연자의 우리말글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심이다. 이걸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방송 기자, PD, 리포터, 연예인, 전문가(예컨대 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을 선발하고 출연시킬 때 카메라 테스트보다 정확한 발음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인사 고과나 출연료에도 이 점을 반영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자막 표기 또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바른 우리말글을 쓸 줄 모르면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시)청자를 모욕하는 일이요, 자기 직업에 대한 모독이다. 나아가, 공직에 취임하는 사

람도 반드시 언어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틀리거나 어색한 말(이를테면 ‘기반(基盤)하다, 너무 (예쁘다), (한국인이 미국에) 들어가다, ---라고, (물을) 먹다, 민초(民草), 바라지고[望] 있다, 바탕하다, 보다 (높이), 보아지다, 본인(本人), 부락(部落), 소개시키다, ---에 있어서의, 女性스럽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있음으로써, 자리매김하다, 저희 나라, 전향적, 지속 가능한, (외국과) 틀리다, ---하는 데 있어서, ---함으로 인해서’ 등등)을 방송 종사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빈번하게 써서 우리말글을 오도하는 바가 너무 크다. 바른 우리말을 위해서는 소위 지식인과 언론 종사자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방송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도 시급하다. 이 글에서 든 예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외국어와 외래어를 혼동하는 데 따른 발음의 혼란과 외국(래)어의 남용 또한 문제이다. ‘사실’ 대신 ‘팩트(fact)’(00.9.28. MBC TV ‘100분 토론’ 토론자들 중)라야 더 유식해 보이고 뜻 전달이 잘 된다고 오해하는 듯하다. ‘학교II’(99.12.19. K1TV 극 예고 아나운서)는 꼭 [학교투:]로 읽어야 하는가? “케이비:에스(KBS) 원투:(1, 2)”(00.12.19 MBC R ‘두 시의 취재 현장’ ㄱ 기자(여))는 바르게 읽은 것인가? 이른바 지식인과 방송인이 오도하고 있는 이런 풍조는 참으로 빨리 고쳐야 할 일이다. 바른 외래어 발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말의 발음 정립이 시급하다. 가능한 한 발음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방송에서는 이를 지켜야 한다. “12·12[시비 시비] 쿠데타 이후---”(00.8.6. MBC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설 ㅅ 성우)처럼, ‘12·12’만 따로 [시비 일리]가 아닌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 다음 ‘외래어 표기법’을 보완하고 이를 널리 홍보·교육해야 한다. ‘慣用’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도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매머드(mammoth)’라는 표기도 원칙적이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언중이 ‘맘모스’라고 하는 실정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표기이다. ‘매머드’라고 쓰고 [맘(매)모스]라 읽을 것인가? 외래어의 발음 문제는 별고에서 논하겠다.

오랫동안 조사해서 힘들여 쓴 글이므로, 이 글에서 적시한 구체적인 용례는 우리말글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글의 성격상,

비교적 정확한 발음을 구사한 경우를 지켜세우지 못해 아쉽다.

첨언하면, 일선에서 학생을 직접 대하는 초·중·고 교사의 우리말 글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니 그 책임 또한 크다. 이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 틀린 어휘로 인한 발음의 오류와 외래어의 발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급하겠다.

바른 생각은 바른 언어 생활에서 나온다. 이를 선도할 사람은 언론 종사자들이다. 따라서 필자는 계속해서 방송과 신문의 문장 등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 오용에 대해 논하겠다. 나아가 일반인에게 영향이 지대한 대중 문화의 우리말글 오용도 검토하겠다.

올바른 말글 생활은 올바른 삶의 출발점이다.

參 考 文 獻

- 교수신문 191호(2000.11.20), 교수신문사.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 (주)두산 동아, 1999.
-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
-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금성출판사, 1988(제8판).
- 안정효, 「가짜 영어 사전」, 현암사, 2000.
- 이은정, 「우리말 발음사전」, 백산출판사, 1992.
- 편집국 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편집국 편, 「뉴에이스 국어사전」(혁신판), 금성출판사, 1995.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개정판 3쇄), 동아출판사, 1996.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제4판 1쇄), (주)두산 동아, 2000.
- 편집국 편, 「옛센스 國語辭典」(수정판 제1쇄), 민중서관, 1991.
- 한국방송공사(KBS), 「표준 한국어발음대사전」, 어문각, 1993.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1.
-
- 金秉南, 「八千萬 우리 한겨레에게 곱함」, 1996.
- 손종섭, 「우리말의 고저장단」, 정신세계사, 1999.
- 정재도, “우리 나라는 한나라”, 한국교열기자학회, 「말과 글」, VOL. 73(1997. 겨울號).
- 許樞a,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 b,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